메시지 3

하나님께서 소모시키시고 벗겨 내시는 것에 대한 구약의 욥의 체험은 신약의 바울의 체험에 훨씬 못 미침

성경: 욥 3:1, 고후 4:10-12, 16-18, 빌 1:19-25, 4:4

Ⅰ. 욥은 자신이 온전하고 올곧으며 순전하였는데도, 자기 소유와 자녀들 위에 재난이 닥치고 자기 몸에 몹쓸 질병이 생긴 것을 두고 극도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심란해하였다.

A.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 것은 자기 어머니를 저주한 것과 마찬가지였으며, 이때 그는 결코 온전하거나 올곧지 못하였고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그의 순전함은 파탄에 이르렀다 — 욥 3:1.

B. 하나님의 의도는 스스로 온전하고 올곧았던 타고난 욥을 허물어뜨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들로 새롭게 된 욥을 건축하시어, 욥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었다. (바울처럼) 그러한 사람은 결코 어떤 괴로움이나 문제 때문에 심란해져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거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지 않는다 — 빌 1:19-25, 4:5-9.

C. 욥은 자신의 탁월했던 과거를 늘어놓고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두고 탄식하며 말하였다(욥 29:1-30:31). 욥은 자신의 올곧음과 의와 순전함과 온전함을 끈질기게 붙들었고 심지어 자랑하였다(욥 27:1-7, 31:1-40).

1. 그러나 바울은 현재의 '오늘의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한 정도까지 얻기 위해, 뒤에 있는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기를 훈련하였다 — 빌 3:8, 13-14.
2. 더 나아가, 바울은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이었다(히 3:7-8, 15, 시 95:7-8). 우리는 미래에 대해 미리 생각하거나 과거를 되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사람들이다(마 6:11, 33-34, 눅 19:9-10, 23:43).
3.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는 지금의 그리스도, 오늘의 그리스도, 하늘들에 있는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매일의 구원과 순간순간의 공급이 되시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유지시켜 주신다 — 마 28:20, 벧전 1:8, 히 8:2, 4:14-15, 7:26, 고후 6:2, 롬 5:10.
4. 우리가 완전히 새 예루살렘이 될 때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을 것인데, 이것은 영원 안에서는 매일이 오늘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날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다.

D. 욥은 그의 세 친구들에게 여덟 차례에 걸쳐 말한 것을 통해, 자신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1. 욥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이었다(욥 6:30, 9:20, 27:5-6, 32:1). 그는 자신의 타고난 존재가 얻은 성공과 성취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자신이 이미 무언가가 되었다고 자만에 빠져서, 자신의 하나님의 앞에서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비교 빌 3:9, 계 3:17-18).
2. 욥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실지로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며,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 — 시 92:10, 레 2:4-5, 롬 8:16, 딤후 4:22, 고전 6:17, 엡 3:19, 5:18, 26, 히 2:10-11.
3. 욥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살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유기체인 새 예루살렘의 어떤 방면이나 어떤 특징을 보여 주는 어떤 요소도 갖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기는 이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새 예루살렘의 본성과 주님의 인격이 모두 이기는 이 안으로 일해 넣어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 계 3:12.

E. 욥도, 그의 친구들도 욥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다. 이와 달리 사도 바울은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들에게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낸다고 선포했을 때 그 목적을 알고 있었다.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영광스러운 몫으로 영원토록 얻고 누릴 영광의 하나님이다 — 고후 4:17.

F. 욥과 그의 친구들이 겸손한 영 안에서, 기도 가운데 자신들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추구했다면(사 57:15, 66:2, 골 4:2),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성도는 타고난 사람과 아무 관련이 없고 타고난 미덕들로 자신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실 수 있었을 것이다.

G. 이러한 하늘에 속한 이상이 있었다면, 그들은 한 무리의 눈먼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고 있는 것에 관한 기록인 서른다섯 장에 나오는, 시간을 낭비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헛된 논쟁에서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 말했고 그들의 영도 언급했지만(욥 32:8),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생명과 빛과 영적인 공급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영을 사용하여 욥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교통하는 대신에, 그들의 생각을 사용하여 삼 회에 걸쳐 긴 논쟁을 하였다.

1. 우리가 활력 그룹을 갖고자 한다면, 욥기에 나오는 이러한 대화들에 의해 경고를 받아야 한다. 욥기에서 우리가 보는 그룹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본을 제시해 준다. 오늘날 교회생활에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그룹 집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활력 그룹은 활력적인 기도를 하는 그룹이다 — 비교 행 12:5, 11-12, 히 10:24-25, 3:13.
2. 그룹들은 이 두 영 안에서 활력적이 된다. 곧 우리 사람의 영 안에서 활력적이 되고 하나님의 신성한 영 안에서 활력적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거듭난 영과 한 영으로 연합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완결되신 영의 생활이다 — 요 4:24, 롬 8:16, 고전 6:17, 갈 3:14, 6:18.
3.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신성한 영을 접촉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의 내재적인 의미이다. 이것이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이자 하나님 안에서의 사람의 움직임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그분의 신부를 준비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도록,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사람 안으로 분배하는 그분의 경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 고후 2:13, 빌 3:3, 롬 1:9.
4.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2:29, 8:5-6, 9), 무엇을 소유하든지(8:10, 16),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하든지(1:9, 7:6, 8:4, 12:11)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온전하게 되고 건축되어야 한다. 영 안에 있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가 되며 이기는 이가 되는 다른 길이 없다(계 1:10, 4:2, 17:3, 21:10).

Ⅱ. 하나님께서 소모시키시고 벗겨 내시는 것에 대한 구약의 욥의 체험은 신약의 바울의 체험에 훨씬 못 미쳤다 — 딤전 1:16.

A. 하나님의 소모시키심은 우리를 소진시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벗겨 내심은 우리의 타고난 순전함의 총체, 곧 성격에 있어서 우리의 타고난 온전함과 올곧음을 허물고 제거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타고난 순전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아 내는 것을 대치한다 — 빌 1:19-20, 3:4-9상.

B. 매일 매시간 욥은 기쁨 없이 소모되고 있었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소모시키심과 벗겨 내심은 즐거운 일이 된다. 바울은 돌이킨 그날부터 주님 안에 갇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모시키심과 벗겨 내심 아래 있는 사람이었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였다 — 행 9:15-16, 고후 4:16, 빌 1:19-21상, 엡 3:1, 4:1, 빌 1:4, 18, 25, 2:2, 17-18, 28-29, 3:1, 4:1, 4.

C.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종결과 발아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거듭나는 것이다(요 3:5, 롬 6:4, 골 2:12). 바울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이것은 그때로부터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한 것이었다(갈 2:20).

D.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살기 위해 죽고 있다(갈 2:20, 고전 15:31, 36, 요 12:24, 고후 4:11). 살기 위해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올바른 의미이다(마 16:24-26, 영한 동번 찬송가 622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461장)).

E. 하나님의 소모시키심과 벗겨 내심을 체험하면서 바울은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짓눌리지 않았으며,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았다. 바울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지 않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바울은 많이 고려한 후에, 성도들의 진보를 위해(성도들의 생명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기쁨을 위해(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계속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였다 — 고후 1:8-9, 갈 2:20, 빌 1:21-25.

F.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곤경을 당할 때에(고후 12:10) 아주 만족해하고 즐거워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다(골 1:24, 빌 2:17-18).

G.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아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를 원했다(빌 3:10).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의 생활의 틀로 취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형태가 빚어지는 것이 그의 큰 즐거움이었다.

H.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의해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확대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생활을 살기를 원하셨다 — 빌 1:19-21상, 창 1:26.

I.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 곧 '예수님을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된다 — 고후 4:10-12.

1.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내주하시는 영과 협력하여, 우리의 몸과 혼으로 구성된 우리의 타고난 사람(우리의 겉사람)을 죽인다. 우리의 겉사람이 죽음의 죽이는 일에 의해 소모되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속사람은 부활 생명의 신선한 공급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 고후 4:16.
2.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다(고전 15:31). 날마다 그는 죽음의 위험에 처했고 죽음에 직면했으며 자아에 대해 죽었다(고후 11:23, 4:11, 1:8-9, 롬 8:36).
3.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능의 적용은 복합되신 영 안에 있다. 복합되신 영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능을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에, 심지어 우리의 죽을 몸에 분배하신다 — 출 30:22-25, 롬 8:6, 9-11.
4. 이러한 분배가 곧 기름바름이고(요일 2:20, 27), 기름바름은 내주하시는 영의 움직임이다. 우리의 기도는 내주하시는 영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며, 이러한 움직임 안에는 죽이는 능력이 있다.

J. 하나님의 소모시키심과 벗겨 내심을 체험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받는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낸다고 말했다. '영원하고도'는 '일시적이고도'와 대조되고, '중대한'은 '가벼운'과 대조되며, '영광'은 '환난'과 대조된다 — 고후 4:16-17, 롬 8:28-29.

K. 욥은 자신이 겪는 환난을 매우 무거운 것으로 여겼지만,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으로 여겼다. 우리는 우리의 환난에 대해 염려하는 대신,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변화됨으로써 중대한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증가하시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많아지시는 것, 바로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 행 7:2, 고후 3:18, 골 2:19.

1. 바울처럼 우리도 고난과 압력의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환경은 그 영과 협력하여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죽인다. 우리는 보이는 일시적인 환난에 속한 것들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에 속한 것들을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하시는 영과 협력하며 밖의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 빌 1:19-20, 고후 4:18, 히 11:1, 27, 고후 5:7.
2.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우리를 죽이는 환경의 한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한다(빌 4:4).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죽임 아래 두도록 주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다. 이것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함으로, 우리를 새 예루살렘같이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고후 4:10-12, 16, 5:17, 갈 6:15, 계 21:2, 5, 10).

© 2020 Living Stream Ministry